

2016 새 설계 **최영호 남구청장**

대촌 에너지밸리·첨단산업단지 본격 착수

모바일 투표로 주민참여 강화

직거래 장터 소상공인 지원

노인·여성 복지 일자리 중심



최영호 광주시 남구청장은 7일 "2016년에는 대촌지역에 추진 중인 에너지 밸리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남구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지난해 남구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패기를 이뤘다"면서 "이를 통해 55만평 규모의 에너지 밸리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 일대를 혁신도시와 연계해 맞춤형 특화 산업 및 배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중앙정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32건의 사업이 선정돼 3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점을 들었다.

그는 올 한해도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으로 성숙한 주민자치기 이뤄지는 남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민의 어려움을 현장

에서 해결하며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주민결정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모바일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주민결정행정 인프라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소소한 마을 분쟁의 경우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당사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 구청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 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가 선순환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 무등시장도 시설을 현대화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전통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의 창업을 돕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과 경영개선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도 추진한다.

최 구청장은 "현재 건립중인 주월1동 거점경로당을 올 2월 개관해 노인들의 휴식, 여가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소득 창출을 위한 자립형 경로당의 모델로 만들겠다"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리더 클럽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성 교육, 협력의 소통창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주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과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여성 친화적 정책 추진도 강화한다.

관광도시로서의 남구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양림동 일원

에 광주 근대역사문화 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대촌지역 전통 민속놀이인 고싸움 놀이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 광주향약과 고싸움 놀이 등 호남문화와 정신을 오롯이 간직한 남구 대촌 칠석마을과 나주시 남평의 평산마을 접점지역에 20만평 규모의 호남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나주시와 진행한다.

최 구청장은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정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구청장은 "교육 특구의 장점을 강화해 공교육 내실화와 미래 지향적인 교육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맞춤형 대학입시 설명회, 소규모 입시교실을 운영하고 옛 청사 부지에 들어설 남구청소년도서관도 내년 개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월산근린공원 부지에 생태 숲을 조성하고 효천1지구 내에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명품 공연도 주택토지공사와 함께 조성 중"이라면서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공영 면적이 가장 협소한 남구의 예외점을 극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중소기업 지원 을 229억원 증액

총 5004억원...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립도

광주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명품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지속한다.

올해 30개를 선정하는 등 내년까지 총 100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선정해 자금 지원과 종합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 및 보증지원을 지난해 475억원에서 올해는 5004억원으로 229억원 증액한다.

대학과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오는 3월까지 설립해 특허기술 창업 및 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민생경제를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오는 3월까지 '1913충정역시장'을 전통과 문화, 디자인과 ICT가 접목된 신개념 시장으로 조성하고,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에 야시장을 조성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구 매월동에 76억원을 들여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도 건립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오는 3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내에 인큐베이팅실, 전시체험관, 교육세미나실 등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을 종합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를 시행하고, 자생력을 갖춘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을 롤모델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환경 정화 활동 광주시 공원녹지과(과장 노원기) 직원들은 지난 6일 북구 충효동에 위치한 광주호수생태원을 방문, 환경정화 활동 이후 새해 업무 공휴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 제공)

첨단 콘텐츠 제작 지원...문화산업 기반 닦는다

송암산단 '제작 클러스터' 조성

광주시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문화콘텐츠 관련 제작 지원에 주력한다.

시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및 CT연구원 조성 사업과 2016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첨단영상, 게임, 음악, 에듀테인먼트, 공예·디자인 등 5대 전략 콘텐츠산업의 낮은 시장 점유율을 극복하기 위해 송암산단에 차세대 고성장,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013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창조콘텐츠제작지원센터'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등 두 축으로 구성되며 ▲광주CGI센터 ▲문화기술(CT)연구원과 함께 첨단영상콘텐츠의 기획·제작·제작→유통·마케팅의 가치사슬을 완성하는

첨단 영상문화산업의 거점 기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학계, 산업계를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산업 유치와 지원을 총괄할 지원센터 구축, 문화산업 투자 기준액 하향 조정(현재 30억원→10억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120억원 규모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 유망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재정적 지원 등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특화된 웹콘텐츠를 실시간 거래하는 '2016광주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 ▲지역 거점 게임산업 육성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등이 올해 새로 추진된다. 기존 광주 ACE Fair, CG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기획·제작 스튜디오 운영 등도 지속 실시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농업기술센터 강소농 지원대상 모집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2016년 강소농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중소규모 가족농으로, 경영 개선 실현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agri.gwangju.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강소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업기

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개선 교육, 정보화교육, 자율모임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강소농(強小農)은 규모는 작지만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경영 혁신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로,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53명의 농업경영체를 선정, 육성해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임 양중근 광산소방서장 "안전한 소방행정 최선"

"소방수요에 맞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소방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신임 양중근(58·사진) 제17대 광산소방서장은 6일 "광산구가 공단 밀집지역으로 갈수록 신도심마저 팽창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늘어난 소방수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서장은 지난 1981년 소방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광주동부소방서 현



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법학박사다. /최승렬기자 srchoi@

장대응과장과 광주소방학교 교수부장,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담양 출신인 양 서장은 조선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법학박사다. /최승렬기자 srchoi@

광산구 '음식문화개선 평가' 2년 연속 우수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2015년 음식문화개선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음식점이 밀집한 동곡동(맛계장백반), 송정2동(떡갈비), 운남동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음식 재사용 금지, 남은 음식 포장해가기,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집중 실시했다.

실제로 광산구는 지역 대표 음식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떡갈비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업주들과 간담회를 매일 갖고 있다. 또한 지난 8

월부터 대학 교수, 음식문화 개선 위원,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떡갈비 TF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블라인드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품질 개선 의견을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산구의 이 같은 음식문화 개선 정책을 비롯한 중장기 계획에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한편 광산구는 광주시가 5개 구를 상대로 진행한 2015년 상반기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구(1위)에 선정돼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NPL대출 전국 특수 물건 90%한도 6.5%~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중도상환 無

화순RPC공장채권 매각

토지 2070평 건물 449평 기계기구일체 7억상당
채권최고액 11억4천만원 전액 배당금 확보 됨.
채권매각가 9억원 문의 담당자 : 010-4557-3034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